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개념연구

임신일(예수대학교)¹⁾, 형희경(예수대학교)²⁾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목회자 자녀가 경험한 스트레스의 개념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5명의 남자 대학생과 5명의 여자 대학생을 인터뷰 하였다. 총 320개의 진술문이 수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4개 진술문이 생성되었다. 이후 연구 대상자들은 44개의 진술문을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5점 척도로 중요도를 기입하였다. 분류된 자료와 중요도를 바탕으로 다차원척도와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하여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의 차원과 군집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목회자 자녀로서 기대-작은 목회자로서의 고충'과 '개인과 가족-타인'의 두 차원과 '부모님의 목회 갈등', '성도관련', '또래와 다른 기대', '경건함 기대', '헌신의 기대', '경제적 문제'의 6군집이 도출되었다.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진술문의 전체 평균 정도는 5점 만점에 4.1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차원별로는 목회자 자녀로서의 기대보다는 작은 목회자로서의 고충이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요인을 보였다. 군집별로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척도가 개발되며,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기획 운영되길 제언한다.

주제어: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개념도 연구

1) 주저자 : 예수대학교 교직부 조교수, 학생상담센터장 (imsi@jesus.ac.kr)

2) 교신저자 :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hhk@jesus.ac.kr)

I. 서론

중·고교생 목회자 자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랑스럽다’라고 답한 응답이 55.8%, ‘불편한 적은 있었으나 지금은 괜찮다’가 55.3%, ‘불편하다’가 29.4% 였다(김종환, 2005 : 138). 또 다른 목회자 자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목회와 신학, 1999. 5)에 따르면 목회자 자녀이기에 좋았던 점은 신앙교육(48%), 교인들의 관심과 중보기도(24%), 명예와 인정받음(8%)로 나타났으며, 목회자 자녀이기에 싫었던 점으로는 행동의 제약과 구속(35%), 경제적 어려움(29%), 주위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24%), 의무적인 신앙생활(8%)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목회자 자녀로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목회자 자녀가 처해있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언론과 연구들은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70%이상의 작은 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은 1등만을 강요당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억압 아닌 억압을 받으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목회자의 자녀들은 부모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주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착한 사람인 척을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 자녀들의 현실이며, 남모르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어린이답게 성장해야 되는 목회자의 자녀들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교해서 애 어른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회자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하게 생각하는데서 많은 문제가 파행되고 있다(기독교 한국신문 2013. 07. 29일자). 이처럼 목회자 자녀의 삶은 부모가 선택한 목회환경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요구를 받는다. 더불어 청소년 누구나 경험하는 ‘질풍노도’ 시기의 여러 현상들을 ‘착함’이란 허울로 억압하여 목회자 자녀들은 심리적 발달에서도 여러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목회자 자녀들은 목회자 자녀로서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신의 동일시로 인한 목회 스트레스를 받는다. 목회자 자녀가 목회자인 부모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경험하는 목회스트레스도 같이 경험하게 된다. ‘목회자 자녀는 또 하나의 “작은” 목회자다.’ 어린 시절 새벽기도부터 주일예배까지 교인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다. 아버지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게 했고 성인이 되어 사이가 회복되기 전까지 아버지와 많은 갈등을 겪었다(CBS 크리스천 NOW 2014. 01. 22일자).는 내용은 목회자 자녀들이 작은 목회자로서 목회스트레스가 상당함을 표현해 주고 있다.

1. 목회자 자녀로서의 스트레스

목회자 자녀들은 자신에게 집중되는 교인들의 관심과 기대 때문에 위축되거나 부담스러워 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목회자 자녀들의 경우도 또래와 마찬가지로 그 시기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만 목회자 자녀이기에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다. 원영선(2000 : 21)의 목회자 자녀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종합해보면, 목회자 자녀로서의 스트레스를 분석해 보면, 목회자 자녀라는 상황을 부담스럽고 불편해 했던 적이 있다(84.7%),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부담스럽다(84.7%), 전학이나 이사를 많이 하게 되어 좋지 않다(72.4%),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83.2%), 새로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주목받는 것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86.9%),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생각 때문에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부정적 생각을 투사할 수 있다(62.9%)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많은 수의 목회자 자녀들이 자신의 위치에 대해 불편해 하고 있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함을 볼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성도들은 한국 목회자 자녀들이 성도들의 자녀들보다 더 나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이 나쁜 성적이나 청소년기의 문제들을 일으키면 하나님께 저주 받은 것이라고 믿기도 한다고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은 그들이 누군인지 알기도 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전형적인 기대감에 맞춰서 살아야만 한다(Cameron Lee, 1992 : 17). 비록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회에 헌신했지만,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평범한 사람이기 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최주혜 2013 : 392) 이에 한국성도들은 목회자 가정은 항상 행복하고 문제도 없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영적 도덕적 모델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홍인중, 2002 : 368).

목회자 자녀들은 잦은 이사,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 목회자 자녀로서 친구 선별성 등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됨을 보고되고 있다(최주혜, 2013 : 397). 이러한 친구관계의 어려움은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조장될 수 있다. 성도들의 자녀와 목회자 자녀가 다름이 있을 때, 목회자 자녀들만 일방적으로 혼을 나가거나, 교회학교 선생님께서부터 예배시간에 떠들었다고 혼자 혼이 날 때,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물건을 빼앗긴 경험들에서 수치스러움과 대인관계 단절을 경험했다는 연구들(홍인중, 2001 : 378; 강연정, 2005 : 122)을 보면 목회자 자녀들이 교우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더불어 또래들과 다른 기대와 잣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누군가에게서 끊임없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성공한 목회자의 삶의 요소 중 일부가 목회자 자녀들의 행실로 평가 받는다면, 목회자 만큼 목회자의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목회자 자녀가 겪는 문제들은 정체감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장종구, 2012 : 34).

2. 작은 목회자로서의 스트레스

목회자 자녀들은 목사인 아버지, 사모인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비난과 칭찬을 함께 공유하며 부모의 사역에 책임감을 느끼는 ‘작은 목회자’로 자라기도 한다(강연정, 2005 : 114). 이에 부모의 목회사역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신이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목회사역과 가정생활의 경계선이 모호하면 할수록 더욱 강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성도가 목회자 가정과의 불분명한 경계를 갖게 되면, 목회자 집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방안까지 들어오는 행동도 서슴치 않게 된다. 이에 목회가족들은 성도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심리적인 침범(Psychological intrusion)까지 경험하곤 한다(Lee and Balswick, 2006 : 76).

목회자 자녀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Cameron Lee(1992 : 31)는 목회자 자녀의 삶을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유리의 집’으로, 목회자 자녀의 행동은 연극의 ‘대본’으로, 그리고 목회자 자녀는 그 연극의 ‘연기자’로 묘사했다. 이처럼 목회와 가정의 경계 모호함은,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칭찬이나 기대, 불평, 불만 또는 비난 등이 목회자 자녀들이 자신의 비난으로 수용하며, 갈수록 목회자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여 바로 자신들을 향한 반응으로 간주해 버리는 ‘동일시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가족 전체가 심리, 정서적으로 분화되지 못하고, 가족 내

적으로 지나치게 강한 결속(togetherness)과 융합(fusion)의 경향을 보이며, 가족 구성원간의 분리와 성장을 저해하는 충동적인 감정체계와 감정반사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가족 전체가 목회자인 아버지와 동일시되어 교인들의 반응에 함께 울고, 웃는 등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도나 목회자 중에서 분화수준이 낮고 융합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계의 불안정성과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제 3자를 끌어들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같은 감정을 투사하는 삼각화의 경향성을 가지는데 목회자 부부나 목회자와 교인들간의 관계의 제 3자로 주로 자녀들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의 형성과 아울러 자녀들의 성격장애나 행동장애와 같은 병리적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강연정, 2005 : 120).

주위 시선 때문에 갖게 되는 목회자 자녀로서의 스트레스, 부모의 목회사역에 누가 되지 않으려는 작은 목회자로서의 스트레스는 분명 이에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목회자 자녀들에게 힘든 심리적 갈등요인이며 이에 대한 분석과 해결점의 제시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추후 목회자 스트레스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하거나,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를 다변량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동안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들의 문헌분석, 또는 단순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한 개념분석 정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목회자 자녀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기보다는 연구자의 의증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을 구분한 몇 편의 연구를 살펴보면, 최주혜(2013 : 394)는 목회자 자녀가 겪는 어려움의 요인을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감, 사회관계성립의 어려움, 부당한 이중기준으로 3가지 정도로 범주로 구분해 설명하였다. 김승환(2011 : 20-26)는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는 외부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가정적인 요인, 신앙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 하였다. 그러나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 이라기 보다는 스트레스의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박대영(2001 : 41-57)은 여러 설문조사와 자료들을 참고하여 청소년 목회자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문제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청소년기의 정체성의 갈등문제, 둘째는 부모와의 갈등문제, 셋째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문제, 넷째는 신앙생활과 관련한 갈등, 마지막으로는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의 문제로 설명하였는데, 이 연구는 신앙생활과 관련한 갈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를 분류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약한 범주로 볼 수 있었다.

기존의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가 먼저 문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를 기입하는 설문조사 형태가 대다수였다. 이는 연구자가 개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설문지를 제작하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의 요인을 빠뜨릴 수 있어 심도 있는 분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목회자 자녀 10명을 집중 인터뷰 하고, 중복되거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항을 바탕으로 진술문을 선별하고 이를 다시 목회자 자녀에게 요인별로 분류하게 하며, 문항별로 중요도를 기입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은 학생들의 인터뷰가 진술문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요인 구분도 학생들의 개념을 반영한 방법으로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을 충실히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목회자 자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개념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자 자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한다.
2. 목회자 자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라북도 J 대학의 1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목회자(목사, 전도사)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초기 12명이었으나, 진술문 분류의 오류를 한 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 총 10명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Kane과 Trochim(2007 : 27-110)은 개념도 연구의 참여자가 최소 10명에서 40명 이하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구분	내용	N
직분	목사	8
	전도사	2
사역 소재지	시	8
	군	2
사역 소재지	10년 이상	7
	6년 이상-9년 이하	1
	5년 이하	2

< 표 1 > 연구 대상자의 부모사역의 일반적 특성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 과정 절차에 따라 1) 개념도를 위한 준비, 2) 아이디어 산출, 3) 진술문들의 구조화, 4) 개념도 분석, 5) 개념도 해석, 6) 개념도의 활동의 6단계로 이루어졌으나(Kane & Trochim, 2007 : 27-110), 본 연구의 목적상 척도 제작이 목적이 아니므로 5단계로 한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개념도 연구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초점 질문을 도출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초점 질문은 ‘목회자 자녀로서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로 결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초점질문을 보완할 부가질문을 완성하여 반 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산출 단계로, 개념도 연구의 중심이 되는 단계로 2013년 11월~12월 말 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인터뷰를 통해 초점질문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최초 이들로 부터 수집한 진술문은 총 320개였다. 이후, 2014년 2월 분석팀(교수 2명, 자문가 2명)은 총 2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에 대한 진술문을 총 44문항으로 결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들을 구조화하는 단계로, 산출된 아이디어 진술문을 연구 참여자들이 이해 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평정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먼저 분류단계에서는 산출된 아이디어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제작하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배부하여 유사한 것끼리 카드를 분류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스마트폰 사용 유발요인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1) 하나의 진술문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고, 2) 주어진 모든 진술문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Kane & Trochim, 2007 : 27-110). 다음으로 평정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구성된 진술문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 순으로 점수를 부과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나중에 각 진술문과 군집 간 어느 개념이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의 정도를 잘 설명하는지 기술하는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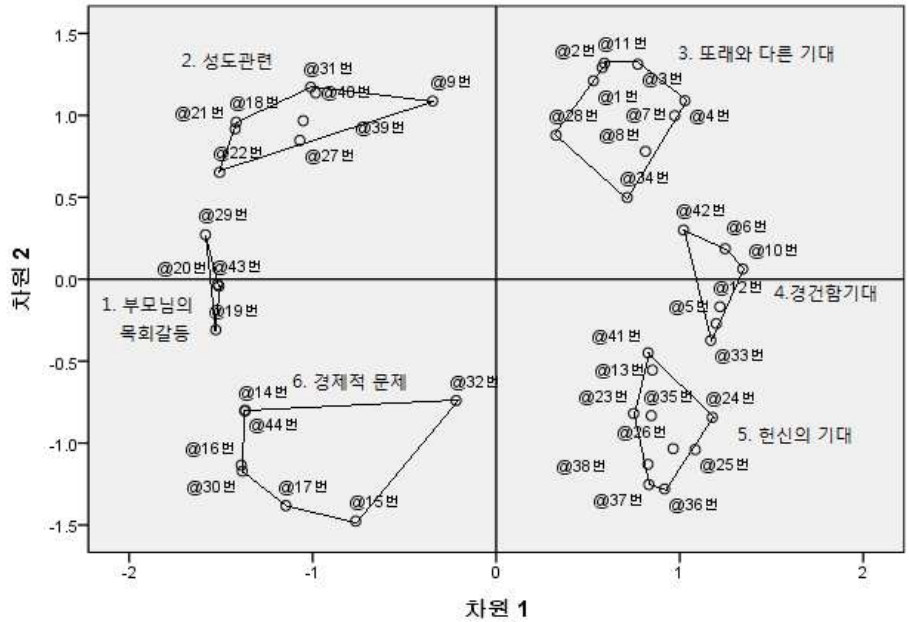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이 생산한 정보를 분석하고 지도를 그리는 과정으로 SPSS 20.0버전을 사용하였다. 첫 단계로, 분류 자료로부터 유사성 행렬표를 만들고 같은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 0, 다른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 1로 코딩하여 연구 참여자의 수(20명)만큼 유사성 행렬(44*44)을 만든 후, 집단 유사성 행렬(GSM: Group Similarity Matrix)을 제작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집단 유사성 행렬표를 활용하여 다차원분석(MDS: Multi-Dimensional analysis)을 실시하고, 유사성이 높은 진술문들이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거리가 가까운 변수들을 묶어 2차원으로 나타냈다. 연구 참여자간 상대적 거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차원 공간에서 위치결정 작업은 더 이상의 개선이 어려울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하였고, 그 결정 작업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이다. 스트레스 값이 작을수록 원래의 유사성 자료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다차원 척도분석에 의해 도출된 x, y값을 기준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때 자료를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Ward 연결방법을 사용하였다(Kane & Trochim, 2007 : 27-110). 군집 수는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을 토대로 결정하였고, 각 군집에 속하는 진술문과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 5점 평정 평균값은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인 개념도 해석 단계에서는 진술문과 군집목록, 군집 지도를 살펴봄으로써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적합한 차원을 찾고자 2차원과 3차원의 스트레스 값과 RSQ(stress and squared correlation)값을 분석하였다. 스트레스 값은 실제의 거리와 결정된 상태적 거리 간의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스트레스 값이 작을수록 포지셔닝 맵이 원래의 유사성 자료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RSQ값은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귀분석의 R^2 값으로 이해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 2차원 스트레스 값은 .299이며 RSQ값은 .537이었다. Kane과 Trochim(2007 : 27-110)이 제시한 다차원 척도 분석에 적합한 스트레스 값의 평균범위(.205~.365)를 충분히 충족시켰다. 본 연구결과와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개념도

축을 기준으로 보면, X축을 기준으로 우편은 ‘목회자 자녀로서 기대 측면’으로 3번 군집(또래와 다른 기대), 4번 군집(경건함 기대), 5번 군집(현신의 기대)로 구분되어지며, 좌편은 ‘작은 목회자로서 고충 측면’으로 6번 군집(경제적 문제), 1번 군집(부모님의 목회 갈등), 2번 군집(성도 관련)으로 이루어져 있다. Y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6번 군집(경제적 문제), 5번 군집(현신의 기대)와 1번 군집, 4번 군집의 일부로 이루어진 ‘개인과 가족 측면’이라면, 윗쪽은 2번 군집(성도 관련), 3번 군집(또래와 다른 기대)은 ‘타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념도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은 목회자 자녀들이 해당군집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거나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은 목회자 자녀들이 해당 군집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6번 군집(경제적 문제), 3번 군집(또래와 다른 기대), 2번 군집(성도 관련)은 목회자 자녀들이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여졌다. 상대적으로 4번 군집(경건함 기대), 5번 군집(현신의 기대), 1번 군집(부모님의 목회갈등)은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

량다)를 바탕으로 한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진술문의 평균은 <표 2>와 같다. 군집별 평균값은 3.93~4.60 였다. 진술문 전체의 평균값은 4.1로 나타났다. 44개의 전체 문항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를 볼 때'가 가장 높은 5.0 만점의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부모님이 자꾸 목회를 그만두시겠다고 하실 때'가 3.1의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의 군집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1군집(부모님의 목회갈등)은 4.17, 2군집(성도관련)은 4.01, 3군집(또래와 다른 기대)은 3.81, 4군집(경건함의 기대)은 3.93, 5군집(현신의 기대)은 4.08, 6군집(경제적 문제)은 4.60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를 군집 순서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 부모님의 목회갈등, 현신의 기대, 성도관련, 경건함의 기대, 또래와 다른 기대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중요도를 진술문을 바탕으로 군집별로 살펴보면, 1군집(부모님의 목회갈등)에서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M=4.7)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부모님이 자꾸 목회를 그만두시겠다고 하실 때'(M=3.1)를 가장 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는 목회자 자녀가 이미 작은 목회자로서 부모의 목회갈등이 자신에게 투사된 결과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군집(성도 관련)은 '성도의 이탈로 부모님의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 때'(M=4.6)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엄마가 아빠나 성도로 받은 스트레스를 나에게 풀 때'(M=3.4)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군집의 결과에서도 자신보다는 부모님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고 집중하는 목회자 자녀의 마음을 볼 수 있다. 3군집(또래와 다른 기대)에서는 '친구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네가 목사님 자녀 맞아?"라고 부담 줄 때'(M=4.5)로 가장 높고, '교회가 집이라고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 할 때'나 '교회 내에서 이성교제는 안된다 하실 때'(M=3.2)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목사님 자녀로서 또래와 다른 기대와 행동절제의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군집(경건함의 기대)에서는 '나는 늘 착하고 선하게 보여야 한다'(M=4.8)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목사 자녀는 다른 사람들 보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 하실 때'(M=3.2)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목회자 자녀로서 공부도 부담이 되지만 착하게 보여져야 하는 성품에 더 많은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군집(현신의 기대)에서는 '월요일 시험이라도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 해야 할 때'(M=4.5)가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문항으로 인식하였고, '목회자 자녀들끼리 봉사에 대한 비교를 할 때', '부모님이 목사, 선교사, 사모로 나를 서원했다고 말씀하실 때'가 (M=3.7)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의 결과는 현신의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일상생활(시험, 평가등)과 교회관련 사역에 대해서 우선순위의 갈등으로 보여진다. 6군집(경제적 문제)에서는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를 볼 때'가 5.0만점으로 가장 높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아빠가 계속 대학원을 다닐 때'가 4.0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의 결과는 목회자 자녀로서 가난한 삶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문항		문항 평균
군집1. 부모님의 목회갈등 (문항 수: 4)		4.17
19	부모님이 자꾸 목회를 그만두시겠다고 하실 때	3.1
20	아버지가 목회 스트레스로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4.4*
29	엄마 아빠가 목회 갈등으로 싸움이 있을 때	4.5*
43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4.7*
군집2. 성도관련 (문항 수: 7)		4.01
9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이 늘 행복해 보여져야 할 때	4.2*
18	성도의 이탈로 부모님이 힘들어 하실 때	4.6*
21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가 분과 될 때	3.9
22	성도가 사소한 일로 집으로 쫓아 오게 될 때	4.3*
27	성도들이 수시로 내방과 집안을 들락거릴 때	3.5
31	설교와 다른 아빠의 삶이 보일 때	4.5*
39	엄마가 아빠나 성도로 받은 스트레스를 나에게 풀 때	3.4
40	성도로 인해 힘들어 하는 엄마를 볼 때	3.7
군집3. 또래와 다른 기대 (문항 수: 8)		3.81
1	교회가 집이라고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	3.2
2	부모님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실 때	4.3*
3	친구들이 목회자 자녀임을 알면서도 비행을 요구할 때	4.2*
4	친구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네가 목사님 자녀 맞아?"라며 부담줄 때	4.5*
7	교회 내에서 이성교제는 안된다 하실 때	3.2
8	목사 자식이 왜 예배시간에 떠드느냐?며 성도들에게 나만 혼날 때	3.6
28	성도들이 나의 사생활에 관심이 너무 많을 때	3.5
34	부모님이 내 물건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4.0*
군집4. 경진합의 기대 (문항 수: 6)		3.93
5	주일엔 공부, 용돈, TV를 못쓰게 하실 때	3.4
6	늘 긴바지와 긴치마를 입어야 할 때	3.7
10	나는 늘 착하고 선하게 보여야 한다	4.8*
12	목사 자녀는 다른 사람들 보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3.2
33	내가 잘못 안 해도 잘못했다고 해야 할 때	4.6*
42	큰 교회에서 훈련받고 싶지만 우리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할 때	3.9
군집5. 헌신의 기대 (문항 수: 10)		4.08
13	목회자 자녀들끼리 봉사에 대한 비교할 때	3.7
23	잡은 이사에도 늘 밝고 명랑하게 행동해야할 때	3.8
24	음악에 소질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반주, 찬양을 해야할 때	4.1*
25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4.4*
26	교회 임원역할을 쉬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때	4.2*
35	부모님이 목사, 선교사, 사모로 나를 서원했다고 말씀하실 때	3.7
36	주일, 수요, 금요, 새벽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할 때	4.2*
37	월요일 시험이라도 주일날 하루종일 봉사 해야할 때	4.5*
38	교회 모든 일에서 솔 수범 할 때	4.3*
41	신앙상담을 교회 내 다른 분에게 하지 못할 때	3.9
군집6. 경제적 문제 (문항 수: 7)		4.60
14	교회 빚 때문에 힘이 들 때	4.6*
15	부모님이 사례비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을 볼 때	4.8*
16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를 볼 때	5.0*
17	경제적으로 힘든데 아빠가 계속 대학원 다닐 때	4.0
30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이 있을 때	4.9*
32	성도가 내 물건을 가져갈 때	4.2
44	현금과 봉사안하는 성도를 볼 때	4.7*

*군집이상 평균값

<표 2>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군집과 진술문의 평균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을 활용하여 목회자 자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고 그들이 지각하는 중요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 자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개념에 대한 범주는 6개의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집명은 '부모님의 목회 갈등', '성도 관련', '또래와 다른 기대', '경건함 기대', '헌신의 기대', '경제적 문제'로 나타났다. 개념도 상에 나타난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개념의 구조 중 '경제적 문제', '또래와 다른 기대', '성도 관련'은 목회자 자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거나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여 졌으며, '경건함 기대', '헌신의 기대', '부모님의 목회갈등'은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념도상 '성도관련', '또래와 다른 기대', '헌신의 기대', '경제적 문제'는 좌표 상 4분면 상에 중첩됨 없이 명확히 위치하고 있었으며, '부모님의 목회갈등'은 '성도관련'과 '경제적 문제'에 인접하게 두 군집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모님의 목회갈등이 성도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기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더불어 '경건함의 기대'도 '또래와 다른 기대'와 '헌신의 기대'에 인접하게 두 군집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목회자 자녀가 생각하는 경건함이라는 것이 또래와 달라야 하며, 헌신의 일부가 경건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6개의 군집은 선행 연구가 언급한 범주들보다는 명확하며 다양화되었다. 최주혜(2013 : 394)가 제시한 '기대감'과 '사회관계 성립의 어려움', '부당한 이중기준'은 본 연구의 '또래와 다른 기대', '경건함 기대', '헌신의 기대'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성도관련', '부모님의 목회갈등', '경제적 문제'등이 범주로 거론되지 않았었다. 박대영(2001 : 41-57)의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의 범주를 살펴볼 때 '청소년기의 정체성의 갈등문제', '부모와의 갈등문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문제', '신앙생활과 관련한 갈등'으로 구분되었다. 이 분류는 목회자 자녀만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목회자 자녀만의 스트레스 요인이라 보기에는 부족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 도출된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요인은 목회자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범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6개의 군집은 2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차원은 '목회자 자녀로서 기대-작은 목회자로서 고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다른 차원은 '개인과 가족-타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차원에 대한 결과는 이후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기획과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목표점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에 대한 문항별 분석결과에서는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를 볼 때'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적인 문제가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의 요인이라는 결과는 원영선(2000 : 21)의 연구, 목회와 신학(1999. 5)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군집별로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 정도를 보였고, '부모님의 목회 갈등', '헌신의 기대', '성도관련', '경건함의 기대', '또래와 다른 기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차원으로 해석해보면 좀 더 심도 있는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내용을 분석해 볼 수 있다. '목회자 자녀로서 기대'보다 '작은 목회자로서의 고충' 차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정도를 보인다는 점

이다. 이는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와 동일시를 통해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경제적 문제 등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보다 더 심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회자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은 고통을 함께 건디는 훈련이 필요한 것 보다는 건강한 분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감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의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군집문항별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부모님의 목회갈등’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은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였다. 연구초기 이 문항이 부모님의 목회갈등 요인에 속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인터뷰 내용을 재차 숙고하였을 때, 본 연구의 차원으로 도출된 ‘작은 목회자로서의 고충’을 가장 잘 대변하는 문항이며, 이 문항이 부모의 목회의 어려움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진술문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대단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부모의 목회갈등을 자녀들에게 표현함에 있어, 다소의 기술적인 세련미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의 스트레스를 위한 상담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 군집인 ‘성도관련 스트레스’ 군집에서는 ‘성도의 이탈로 부모님이 힘들어 하실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또한 성도의 이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는 청소년기에, 이미 목회자의 고통을 아이가 부모를 통해 겪어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목회자와 자녀간의 건강한 심리적 분리가 필요함을 설명해 주고 있다. 세 번째 군집 ‘또래와 다른 기대’는 타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친구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네가 목사님 자녀 맞아?”라며 부담 줄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회자 자녀가 ‘착함’이란 명찰을 달고 학교에서 생활 할 수 밖에 없으며, 무엇인가를 늘 손해 봐야 하거나,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표현 하는 것조차 문제시 되는 분위기에서 학교와 교회 내에서 목회자 가족을 바라보는 신성시 하는 시선이 변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목회자 가족에서 자녀에게 섬김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 목회자 자녀들의 심리적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군집 ‘경건함의 기대’에서 ‘나는 늘 착하고 선하게 보여져야 한다’의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착한 것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착하게 보여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청소년기에 갖는 것은 건강한 정체감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장종구, 2012 : 34)와 맥을 같이 한다. 다섯 번째 군집 ‘헌신의 기대’에서 ‘월요일 시험이라도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해야 할 때’가 가장 높은 평균치를 나타냈다. 인터뷰 내용 중 “주일날 시험공부를 안 해도 될 만큼 주중에 다 하라고 하시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점수를 채워주세요”라고 말한 학생이 있었다.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신앙과 현실의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목회자 자녀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내용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신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 군집 ‘경제적 문제’는 모든 문항이 4.0이상의 높은 평균을 보였고, 이중 엄마의 경제활동,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싸움 등이 매우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많은 수의 미자립 교회, 또한 목회자 가족이 경제적으로 풍족히 누리는 것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지 않는 사회시선 등에서 목회자 자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설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회, 총회, 사회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며 더불어 경제 외적인 방법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전라북도 지역의 목회자 자녀들이다. 전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

님의 목회연수가 10년 이상이었지만 대부분 소위 말해 큰 교회가 아닌 자그마한 교회가 많았다. 따라서 이를 목회자 자녀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교회규모별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방법의 특성상 추상적 사고나 연역적·조합적 추리가 가능한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여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유년기 당시의 스트레스의 요인과 정도가 변화될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목회자 자녀 발달시기 별 스트레스 정도와 요인을 분석해야 하며, 성인들까지 대상을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주 저자는 교육상담을 전공하고 목회자 자녀 상담의 사례가 충분하지만, 본 연구가 교육상담적 관점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목회학적 관점에서 협력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분석과, 다차원분석과 군집분석을 바탕으로 양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의 요인과 정도를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적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열식의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요인분석이 아닌, 차원이 포함된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기초가 되었으며, 진술문 내용분석은 많은 시사점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추후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척도개발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연정(2005). “목회자 자녀의 건강한 자아형성을 위한 상담의 과제.”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9. 113-144.
- 기독교 한국 신문 2013. 07. 29.일자 “목회자 자녀에게 모범생 강요는 가혹한 고문.”
- 김승환(2011). “P.K의 스트레스와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종환 (2005). “PK를 더 이상 목회의 희생자로 보지 말자.” 『목회와 신학』. 6. 138-139.
-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1999). “PK들의 고백과 설문조사.” 『목회와 신학』. 199. 서울 : 두란노서원.
- 박대영(2001). “목회자 자녀의 갈등에 관한 연구 : 미누친의 구조적 치료의 관점에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원영선(2000). “목회자 자녀의 삶의 위기와 그 극복.”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 장종구(2012). “PK, 아파하며 감사하며.” 『활천』.703.32-36.
- 최주혜(2013). “한국 목회자 자녀의 수치심.” 『신학과 실천』. 36. 389-415.
- 홍인중(2002). “목회자 자녀의 독특성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18.
- Cameron Lee, PK: Helping Pastors' Kids through Their Identity Crisis,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2)
- CBS 크리스천 NOW 2014. 01. 22.일자 방송 “목사 자녀 열전.”
- Lee, Cameron and Jack Balswick. Life in a Glass House: The Minister's Family and the Local Congregation. Pasadena, CA: Fuller Seminary Press, 2006.
- Kane, M., Trochim, W.M.K.(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